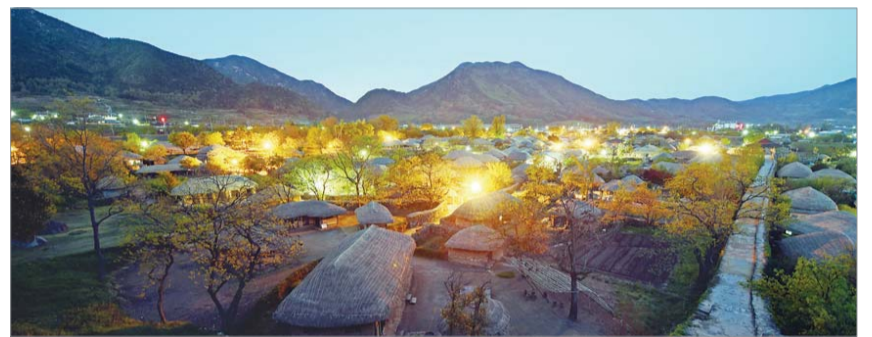




동·서·남문의 주 계단 외에 성 안에서 성벽으로 오르는 폭이 좁은 계단이 16개 있다. 유사시 성 안의 백성들이 신속히 성벽 위에 올라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국방저널 기획 '성곽순례-낙안읍성' e북에 소개
낙안(樂安)! 이름 그대로 즐겁고(樂) 편안함(安)이 느껴진다. 그리 높게 느껴지지 않는 성(城), 낙안읍성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에 둘러싸인 평지에 자리해 있다. 국방저널 5월호는 기획 '성곽순례' 세 번째로 전라남도 순천의 '낙안읍성'을 소개한다. 기사 전문은 국방저널 e북에서 만날 수 있다.

왜구 막아내던 삶터 과거로의 시간 여행



초저녁의 낙안읍성 전경.

우리나라 성곽은 산에 지은 산성이 대부분이지만 평야 지대나 평야에 연해 백성과 관리가 함께 삶을 영위(행정)하면서 적을 막도록(군사) 건립된 읍성(邑城)도 수백을 헤아린다. 그중에서 낙안읍성은 옛 자취가 비교적 잘 보전돼 있으며 현재 일반인들이 성내에서 거주하는 유일한 성이기도 하다.

옛 자취 잘 보전...아직까지 성 안에 주민 거주하는 유일한 곳

낙안읍성은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조선 시대 임경업 장군이 하루 만에 쌓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고려 말부터 왜구가 자주 침입하자, 조선 태조 6년(1397)에 절제사 김빈길 장군이 흙으로 읍성을 쌓았다. '세종실록'에는 1424년 9월부터 돌로 더 크게 쌓았고 인조 4년(1626)에 이르러 낙안군수로 부임한 임경업 장군이 다시금 고쳐 쌓았다.

낙안읍성은 축성 목적이 왜구를 막고자 하는 군사적 기능에 있었다. 성곽으로서 읍성이 방어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군사와 관련된 기록과 전설이 몇 가지 전해온다. 임진왜란 중에 군수와 병졸들이 관아를 비우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따라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사이 일부 백성들이 관아를 습격해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고 한다. 실제 이순신 장군이 낙안읍성을 찾은 건 1597년 8월 9일(양력 9월 19일)이었다. 명량대첩을 앞둔 시기, 조선 수군을 재건하면서 보성으로 가는 길이었다. 정유재란 때는 후퇴하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등 왜군들이 낙안에서 가까운 순천에 왜성을 치고 장기전을 펼쳤고, 이때 많은 주민이 피란을 떠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동학혁명 때도 동학군이 읍성을 점령한 후 농민들을 수탈하던 아전들을 징계하면서 많은 집이 불탔다.

태조 때 첫 축조...인조 때 임경업 장군이 고쳐 쌓아

성내에는 현재 98가구 2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농사도 짓고, 여행객을 대상으로 음식과 기념품도 판매한다. 가을걷이 등 조상들의 옛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가옥이 있다. 민박도 한다. 곁은 초가집이지만 방은 현대적이다. 밤에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불빛이 성을 둘러싼 어두운 산색과 어울려 더없이 조용하고 평화롭다.

글=신인호/사진=이경원 기자 ■ 편집=정임숙 기자

樂安邑城



낙안읍성은 북문 없이 동문에서 서문으로 성벽이 연결돼 있다. 사진 중앙에서 보이듯 동쪽 성 벽면과 북쪽 성 벽면이 만나는 자리에 치성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설치돼 있다. 치성은 원래 6곳이 있었으나 현재는 4곳만 남아 있다.